

세계식량가격 8개월째 내림세...유지류 7개월 만에 가격 상승

FAO 11월 세계식량가격지수 발표
곡물지수 1.3% ↓ ...3개월 만에 하락
흑해 곡물 수출협정 복귀 밀 가격 ↓

11월 세계 식량 가격이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하며 8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국제 밀 가격이 하락했지만, 유지류 가격은 7개월 만에 다시 오름세를 보였다.

3일 농업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11월 세계식량 가격지수는 전월(135.9p)보다 소폭 하락한 135.7포인트(p)로 집계됐다.

FAO는 24개 품목에 대한 국제가격 동향(95개)을 조사해 5개 품목군(곡물, 유지류, 육류, 유제품, 설탕)별 식량가격지수를 매월 작성·발표한다. 2014~2016년 평균값을 100으로 이보다 높으면 인상, 낮으면 하락으로 평가한다.

식량가격지수는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불안 속에 2020년 하반기부터 오르기 시작했으며 올해 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과 함께 급격히 치솟았다. 이어 지난 3월 역대 최고치(159.7p)를 찍은 뒤 4월부터는 하향세로 돌아서며 8개월 연속 하락했다.

품목별로 보면 곡물 가격지수는 150.4p로 전월(152.3p)보다 1.3% 하락했다. 국제 밀 가격은 러시아의 흑해 곡물 수출협정 복귀에 따라 내려갔다. 또 미국산 밀의 높은 가격으로 인한 수입 수요 감소, 러시아 밀 공급량 증가 등도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옥수수 역시 흑해 곡물 수출협정 연장 및 미국 미시시피강의 수위 회복에 따른 물류 여건 개선 영향으로 가격이 내려갔다. 쌀 가격은 환율 영향으로 상승했다.

유지류는 전월(151.3p) 대비 2.3% 상승한 154.7p를 기록하며 7개월 만에 가격이 올랐다. 팜유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이 수입 수요를 증가시켰다. 대두유 역시 미국을 중심으로 바이오연료 관련 지속적인 수요가 있어 가격이 올랐다.

반면 유채씨유는 국제 공급물량이 충분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가격이 내려갔다. 해바라기씨유 또한 흑해 곡물 수출협정이 연장됨에 따라 가격이 하락했다.

육류는 전월(118.2p) 대비 0.9% 하락한 117.1p를 기록했다. 소고기는 브라질과 호주의 수출 물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내려갔다. 가금육은 조류인플루엔자 심화에 따른 공급 물량 감소로, 돼지고기는 연휴 기간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한 데다가 환율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올랐다.

유제품은 137.5p로 전월(139.3p)보다 1.2% 내려갔다. 설탕은 전월(108.6p) 대비 5.2% 상승한 114.3p를 기록했다. 주요 생산국의 수확 지연에 따른 공급량 부족과 인도의 설탕 수출 제한 조치가 가격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브라질에서 에탄올 가격이 상승하면서 에탄올용 사탕수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줬다.

농식품부는 관련 업계와 주요 곡물 등의 채고와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국제 곡물 수급 및 가격 불안 상황에 대응하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6월 이후 주요 곡물 국제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 상황을 유지하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추이와 주요 수출국 기상 상황 등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에도 전반적으로 보합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파종 단계인 남미의 기상 상황과 우크라이나 사태 추이, 중국의



수요 변화 등이 가격 변화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부는 국제 곡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소·돼지·닭고기 등 주요 축산물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축산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1조5000억원 규모 특별사료 구매자금(금리 1%) 융자 상환기간을 3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으로 연장했다.

이와 함께 축산농가의 생산비 저감을 위해

2023년도에 1조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연말연시 한우 소비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대형마트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120억 규모의 할인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국제 식량 가격 및 수급 상황을 점검해 국내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이슬 기자

연말 홈파티족 겨냥...간편식 시장 진출하는 외식업체

가정간편식(HMR)·밀키트 시장 진출하는 외식업체 늘어



간편식 시장이 성장하면서 가정간편식(HMR) 및 밀키트 시장에 진출하는 외식업체들이 늘고 있다.

외식 사업을 하면서 쌓아온 노하우와 경험으로 무장한 외식업체들은 간편식 제품을 출시하며 간편식 시장에서도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다. 외식업체들은 매장에서 먹는 맛을 그대로

로 구현한 제품을 선보이며 연말 홈파티족을 겨냥하고 있다.

피자알블로는 프레시지와 협약을 통해 '식물성 라구 파스타' 밀키트 3종을 출시했다. 제품은 라구 파스타, '김치 토마토 파스타', 라구 리조토' 3종으로 프레시지의 대체육 브랜드 헬로베지와 피자알블로의 시그니처 소스를 활용해

개발했다.

식물성 대체육을 통해 탄소 절감은 물론 렌지업 상품으로 간편하게 파스타를 즐길 수 있어 착한 소비를 즐기고 간편식을 원하는 현대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하고 있다.

연말에 부담스럽지 않은 대체육으로 홈파티 메뉴를 준비하고 싶은 고객들에게 어울리는 메뉴다. 더본코리아는 대형 실내포장마차인 한신포차에서 경험하던 맛 그대로 가정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한신포차 나직볶음'을 출시했다.

한신포차의 대표 인기 메뉴인 나직볶음은 한신포차만의 비법 소스를 더해 중독성 강한 매운맛과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자연산 낙지가 들어있어 훌륭한 식감과 깔끔하면서 매운 맛으로 호불호 없이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촌설렁탕 등을 운영하고 있는 이연에프앤씨는 다양한 국탕류 간편식과 불고기 간편식을 판매하고 있다.

한촌설렁탕의 대표 메뉴인 불고기를 집에서 그대로 느낄 수 있는 '한촌 양념 불고기'는 기름기 없는 담백함과 얇은 두께로 푹 익어도 질기지 않은 맛을 자랑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 재확산과 고물가로 인해 올 연말에도 홈파티족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매장에서 먹는 맛 그대로 살린 외식업체의 간편식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재환 기자

갑작스런 강추위에 '패딩'보다 '내복' 더 찾아



급격히 추워진 날씨에 최근 이틀간 '발열내의' 매출이 최대 5배 이상 경증 뛰는 등 추위를 막는 아이템이 인기다.

지난달 30일 전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후 12월 들어서 연일 영하권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다. 11월 내내 한낮 기온이 20도 안팎의 따뜻한 날씨가 이어진 터라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패딩, 코트 등 단가가 높은 아이템보다 옷 속에 가볍게 입기 좋은 '발열내의' 등을 찾는 소비자가 급증한 모습이다.

4일 신성동상이 운영하는 SPA 브랜드 탐텐에 따르면 기능성 발열 내의 '온에어'는 한파특보가 처음 내려진 30일, 이달 1일 이틀간 매출이 직전 주(11월 23~24일) 이틀간 매출보다 5.5배(450%) 신장했다.

BYC에서도 기능성 발열 내의 '보디히트'를 출시해 판매 중인데 같은 기간 자사몰에서의 매출이 직전 주 대비 3배(181%) 가까이 상승했다. 직영점에서도 보디히트의 매출 신장률

은 179%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추위는 급격한 기온 변화에 따른 것으로, 강추위가 시작되자 패딩과 코트 등 단가가 높은 FW(가을·겨울) 아이템보다 발열내의 등 부담 없이 구매하면서 추위를 막아주는 아이템의 인기가 높았다.

실제로 G마켓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5일간 겨울 패션 아이템 매출을 직전 주 5일과 비교했을 때, 가장 신장률이 높았던 품목은 장갑(612%)으로 7배 이상 상승했다. 장갑의 뒤를 이어 부츠(331%), 패딩부츠(297%), 수면양말(121%), 기모스타킹(96%) 등이 2~4배 이상 많이 팔렸다.

패딩(여성 43%, 남성 37%)과 코트(여성 47%)도 최근 5일간 매출이 전주 대비 오름세 이긴 했지만, 장갑·부츠 등 패션 아이템과 비교하면 강추위임에도 매출 신장률은 두 자릿수에 그쳤다.

또 급격히 추워진 날씨에 단열시트(111%), 문풍지(102%)를 찾는 소비자도 2배 이상 늘었다. 난로(72%), 온풍기(60%), 전기방석(37%) 등 난방용품은 찾는 고객도 일주일 사이 증가했다.

한편 이번 강추위는 이번 주말부터 평년 수준으로 기온이 회복되며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겨울철 기압계로 바뀌며 대륙 고기압 확장에 따라 다음 주까지는 주기적인 기온 변동이 예상된다.

오유나 기자

'본격 한파' 다시 집콕·집꾸...성능·디자인 힘주는 가전

번거로운 집안일 해결...청결한 환경 중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집에서 안락한 여가 시간을 보내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일명 집콕 생활이 많아지면서 번거로운 집안일은 해결하고 청결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는 생활가전 제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집꾸족(집 꾸미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에 도전하는 사람들도 늘면서 디자인과 성능을 모두 갖춘 인테리어 가전 여기 주목받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집콕 생활에서는 청소가 중요하다.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건강과 청결을 위해 집안 청소는 매우 중요하다.

청소가 끝나면 물걸레 세척과 건조까지 한번에 해결해 주는 올인원 로봇청소기 '로보락 S7 MaxV Ultra(S7 맥스V 울트라)'는 먼지통 비움부터 자동 물걸레 세척, 도크 내부 청소 등이 가능한 엠티 워시 필드크(Empty Wash Fill

Dock)를 통해 청소의 편리함을 극대화 했다. 엠티워시필드크에 설치할 수 있는 열풍건조 모듈은 물걸레 세척이 끝나면 자동으로 45도의 열풍을 내뿜어 자연건조 대비 6배 빠르게 물걸레의 습기를 제거해줘 가사 노동의 부담 없이 실내를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다.

에코백스의 디봇 T10 옴니는 흡입 청소와 물걸레 청소를 겸용한다. 자동으로 먼지통을 비워주고 물걸레도 세척한다. 젖은 물걸레는 열풍으로 건조한다.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 앱으로 집안 전체 또는 구역별 원격 청소가 가능하다. 걸레의 물기와 세척 간격, 건조 시간까지 제어할 수 있다.

건조한 겨울철을 대비해 실내 습도를 쾌적하게 유지해주는 가습기도 필수 생활 가전으로 자리 잡았다. 쿠쿠전자의 '아이편한 가습기 타워'는 스마트 자동 습도 조절 기능을 갖춰 40%, 50%, 60% 등 3가지 중 원하는 습도량을



설정해 가습량을 조절할 수 있다.

세밀한 온도 조절로 실내 공간을 쾌적하게 해주는 난방 제품도 인기다. 경동나비엔은 나에게 딱 맞는 수면 온도로 최적의 수면 환경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온수매트 신제품 'EQM591'을 선보였다. 0.5도 단위로 정밀하게 제어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듀얼온도센싱을 통해 사용자 환경에 따른 매트 온도 변화까지 콘트롤해 원하는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이슬비 기자

1년에 한번 '쿠팡몰 연말 굿바이 세일'

쿠팡은 자사 공식 쇼핑몰 '쿠팡몰'에서 11일까지 '2022 쿠팡 굿바이 세일'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쿠팡 베스트셀러 발송부터 인덕션과 신제품 등 품목별 인기 상품을 최대 86%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인다. 쿠팡몰에서 1년에 단 한 번 진행되는 가장 큰 행사다.

이번 행사에서는 쿠팡 '화이트 3구 인덕션 더 블랑'이 특가 판매된다. 리부 작성 고객은 인덕션 전용 냄비를 받는다. 쿠팡 121 ME 밥솥(3인용), 121 밥솥 시리즈, 쿠팡 IH압력밥솥(6인용), 미니 에어프라이어, 121 마스터 플러스 밥솥(6인용·10인용), 하이브리드레인지 등 다양한 상품으로 쇼핑의 폭을 넓혔다.

5일부터 9일까지 '월데이 타임 특가'도 열린다. 단 하루씩만 진행되는 '월데이 타임 특가'에서는 요일별로 ▲미니 에어프라이어 ▲화이트 3구 인덕션 더 블랑 ▲1구 인덕션 ▲쿠팡 121 밥솥 6인용과 10인용 ▲플렉스룩 등이 선보인다.

스테인리스 특집으로 구성된 마지막 날에는



스테인리스 내수에 스마트 IoT(사물인터넷) 기능이 추가된 신제품 트리플 밥솥(6인용), 121 ME 밥솥(3인용)을 특가로 만나볼 수 있다.

뉴스